



발행 ■ 천주교 서울대교구 | 발행인 정순택 | 편집 문화홍보국 주보편집팀 | 인쇄 가톨릭출판사
전화 02)727-2114 | 이메일 jubo@seoul.catholic.kr | 홈페이지 http://cc.catholic.or.kr
카카오톡 채널 https://pf.kakao.com/_xhGxjBxb | 인스타그램 @seoul_jubo | 유튜브 @catholictube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길 74 천주교 서울대교구청 7층 문화홍보국



부활 | 박정석 미카엘, 각 40x180cm, 40x150cm 레드케임 기법, 2022년, 신수동성당

입당송 | 이사 48,20 참조

환호 소리 울리며 이 일을 알리고 전하여라. 땅끝까지 퍼뜨려라. 주님이 당신 백성을 구원하셨다. 알렐루야.

제1독서 | 사도 8,5-8,14-17

화답송 | 시편 66(65),1-3ㄱ,4-5,6-7ㄱ,16과 20(◎ 1)

◎ 온 세상이아, 하느님께 환호하여라. (또는 ◎ 알렐루야.)

○ 온 세상이아, 하느님께 환호하여라. 그 이름, 그 영광을 노래하여라. 영광과 찬양을 드려라. 하느님께 아뢰어라. “당신이 하신 일들 놀랍기도 하옵니대!” ◎

○ “온 세상이 당신 앞에 엎드려, 당신을 노래하게 하소서. 당신 이름을 노래하게 하소서.” 너희는 와서 보아라, 하느님의 업적을, 사람들에게 이루신 놀라운 그 위업을. ◎

○ 바다를 바꾸어 마른땅 만드시니, 사람들은 맨발로 건너갔네. 거기서 우리는 그분과 함께 기뻐하네. 그분은 영원히 권능으로 다

스리신다. ◎

○ 하느님을 경외하는 이들이, 모두 와서 들어라. 그분이 나에게 하신 일을 들려주리라.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않으시고, 당신 자애를 거두지 않으셨으니, 하느님은 찬미받으소서. ◎

제2독서 | 1베드 3,15-18<또는 4,13-16>

복음환호송 | 요한 14,23 참조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도 그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가서 그와 함께 살리라. ◎

복음 | 요한 14,15-21<또는 17,1-11>

영성체송 | 요한 14,15-16 참조

주님이 말씀하신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켜라. 내가 아버지께 청하면, 아버지는 다른 보호자를 보내시어,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알렐루야.



| 나는 오래된 거리처럼 너를 사랑하고

방중우 야고보 신부 |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나는 오래된 거리처럼 너를 사랑하고” 우연히 읽게 된 진은영 시인의 시, <청혼>의 일부이자 시집의 제목입니다. 이 시를 처음 읽었을 때 마음이 참 따뜻해졌어요. “오래된 거리”가 주는 의미가 온전히 느껴졌기 때문이지요.

저의 오래된 거리를 떠올려 봅니다. 친구들과 함께 뛰놀던 어린 시절의 거리, 추운 새벽 복사를 쓰기 위해 어머니의 손을 꼬옥 잡고 걷던 거리, 유학 시절 공부에 지쳐 터벅터벅 걸어가던 거리. 언제 다시 찾아가도 저를 따뜻하게 반겨줄 것 같은 오래된 거리들이랍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그 자리에서 변함없이 저를 사랑해 주는 가장 오래된 거리는 예수님이예요. 저의 허물도 부족함도 알고 계시지만 단아한 불빛을 밝히며 실제로 그 자리를 지키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이지요.

오늘 복음은 최후의 만찬 때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며 남기신 예수님의 마지막 약속들이예요. 그중 첫 번째는 ‘성령 파견에 관한 약속’이지요. 예수님께서서는 하느님께서 성령을 통해 제자들이 필요한 모든 것을 알게 해 주실 것이고, 당신의 말씀도 잘 이해할 수 있게 해 주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두 번째는 ‘제자들에게 다시 돌아오리라는 약속’이예요. 비록 세상은 예수님을 보지 못하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은 예수님을 계속해서 보고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약속들은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지치지 않는 사랑을 의미한답니다.

그런데 좀 의아하지 않나요? 성경의 제자들은 게으르고 예수님을 의심하며, 심지어 십자가 수난 앞에서 거짓말까지 동원해 당신을 모르는 척까지 하는데도 이렇게 소중한 약속들을 해 주신다니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당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그들이 회개할 것이라는 확신을 하고 계셨던 거지요. 결국 예수님께 중요한 것은 개인의 허물이나 한계가 아닌, 회개하고 돌아오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주님은 마치 오래된 거리처럼 제자들을 기다리시며 그들을 이끌어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스스로를 바라보면 실망스러울 때가 있지요. 때로 우리는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누군가를 미워하기도 하며 개인의 욕심을 추구하곤 하니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이 원망스러울 때도 있고요. 하지만 오늘 복음에서 보이셨던 예수님의 시선을 기억하면 우리는 다시금 새로운 희망을 품게 됩니다. 다만 명심할 것은 이러한 은총과 사랑이 거저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래된 거리를 찾아가 추억을 확인하고 싶다면 그곳으로 돌아가야 하듯, 우리는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 사랑을 고백해야 해요. 바로 그때 주님은 우리를 다시금 품에 안아주실 것입니다. 그곳에는 주님과 나의 추억이 있고 사랑이 있습니다. 오래된 거리처럼 나를 사랑해 주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그날, 너희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며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요한 14,20)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는 주님과 깊은 관계 안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사랑과 선하심은 영원히 변하지 않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스테인드글라스 창을 통해 들어오는 빛이 비치는 고요한 성당 안에서 주님과 관계가 얼마나 깊고 의미 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함께 계시며 다른 곳에서도 항상 함께 하십니다. 우리 안에 그분이 머무시며, 우리도 그분 안에 존재함을 고백하게 됩니다.

작품 설명

박정석 미카엘 | 루크글라스



기적 같은 선물

제 남편을 처음 만났을 때 그는 무신론자였습니다. 신은 없다고 생각하고, 특정 종교를 믿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런가 보다 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뒤늦게 알게 됩니다. 그는 무신론자를 넘어 신을 부정하는 사람임이요. 그는 주말이면 저를 만나러 종종 성당 앞으로 오곤 했습니다. 그리고는 반가운 얼굴로 웃으며 물었습니다. “이성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 어떻게 진화론이 아닌 창조론을 믿느냐, 사랑의 신이라면서 십자군 원정에서의 처절함은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등어요. 농담처럼 말했지만 사실상 비아냥 거림이었죠. 어떤 날은 웃어넘기기도 하고 어떤 날은 다투었던 기억이 납니다. 시간이 흘러 그와 관계가 깊어질수록 우리 둘 사이에 어쩌면 종교가 큰 산이 될 수도 있겠단 걱정이 들었습니다. 부부가 서로 종교가 다를 수도 있다고 머리로는 생각했지만 제 가정만큼은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성가정이길 꿈꿔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중 제가 다니던 성당에 예비자 모집 공고 플래카드가 내걸렸습니다. 그해는 “예비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라는 문구에 유독 눈이 갔습니다. 갑자기 백일기도라도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를 주님 자녀로 불러 달라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그가 제 배우자라면 그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으로 응답을 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결혼 상대로 확신이 없었나 반문할 수도 있지만 그 당시 저의 솔직한 심정은 간절함이었습니다. 그렇게라도 그가 주님의 자녀가 돼, 그와 함께 성가정을 이루고 싶은 간절함 말이지요.

매일 아침 방송이 끝나면 성당에 들러 몇십 분 주님 앞에서 중얼거렸습니다. 그를 위한 간청의 기도가 명분이었지만 매일 주님과 온전히 대화하는 그 시간이 참 좋았습니다. 그렇게 한 달쯤 시간이 흘렀을까요? 백일이 되려면 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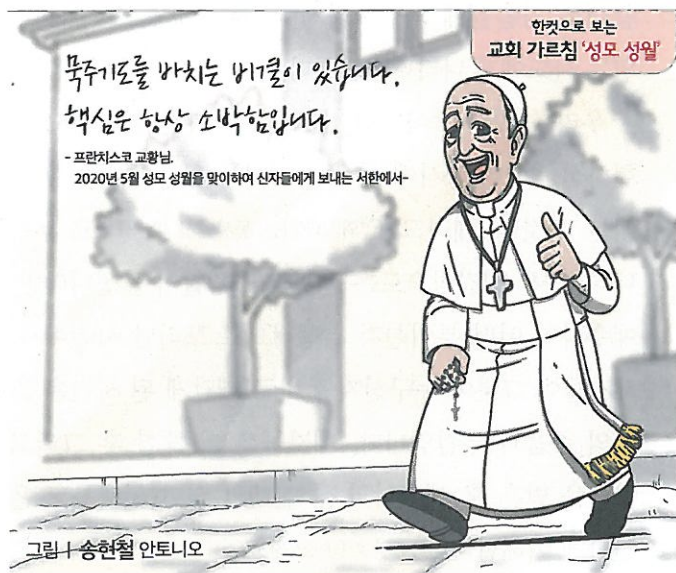


이정민 세실리아 | MBC아나운서

직 시간이 남았는데 그에게서 예기치도 못한 기적 같은 말을 듣게 됩니다. “네가 그렇게 믿는 신이란 존재를 나도 한번 알아나 볼까?” “뭐??” 꿈인가 생시인가 의심이 들 만큼 그 당시 그 말은 기적 같은 메시지였습니다. ‘아무 계기도 없이 사람의 마음이 정반대가 될 수 있다고?’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웬지 느낌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처음 시작은 삼세판이었습니다. 딱 3번만 교리를 들어보고 마음이 내키지 않으면 없던 일로 하자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3번이 6번이 되고 3개월이 되고 6개월이 되어 그는 짧지 않은 교리를 성실히 마쳤습니다. 그해 여름 끝자락 그는 눈물로 통회하며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10월 저희는 혼인성사와 함께 부부가 되었지요.

저의 결혼 스토리를 비신자는 웃어넘길지 몰라도 신앙인에게엔 울림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용기 내봤습니다. ‘구하면 받는다.’라는 마태복음 구절을 떠올리는 분도 계시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요. 주님이 계획하신 일은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을 때,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이루어짐을 깨닫게 된, 제 인생 최고의 경험으로 꼽는답니다.



케리그마,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최현순 데레사 | 서강대학교 전인교육원 교수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행적,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그분에 대한 사도들의 증언을 신약성경에서 듣습니다. 그러면 신약성경 전체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글을 쓰거나 이야기를 할 때 잡담이 아닌 경우라면, 정말 하고 싶은 말을 생각하고 거기에 상세한 것들을 덧붙여 풍요롭게 만듭니다. 신약성경이 27권으로 구성되어 있고, 인간 저작도 - 성경은 성령의 영감에 의해 쓰여졌으므로 제1저자는 하느님이십니다. - 저술 시기도 문체도 다르지만, 교회가 이 책들을 성경이라고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은 그 다양성을 관통하는 일치된 메시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신학적으로는 1코린 15,3-5가 그 핵심이라고 봅니다. “나도 전해 받았고 여러분에게 무엇보다 먼저 전해 준 복음은 이렇습니다. 곧 그리스도께서는 성경 말씀대로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성경 말씀대로 사흘날에 되살아나시어, 케파에게, 또 이어서 열두 사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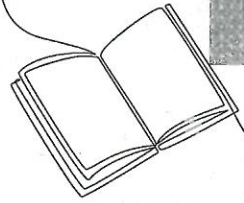
우리를 위해 돌아가심, 묻히심, 부활하심 그리고 발현하심, 이 네 동사에 복음의 핵심이 있습니다. 신학에서는 이것을 ‘케리그마’(외치다라는 동사에서 파생)라고 부릅니다. 물론 시간상으로는 탄생과 공생활이 앞섭니다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결정적으로 드러난 사건이자, 제자들이 그분이 누구인지 올바르게 깨닫게 된 사건은 그분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제자들은 이 체험 후 그리고 성령을 받은 후 예수님의 삶 전체의 의미를 새롭고 온전하게 이해합니다.(요한 2,19-21 참조)

이제 “우리의 죄 때문에”라는 표현에 주목해 봅시다. 바로 사도의 서간문에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신 예수님이라는 말이 자주 등장합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실제 예수님의 죽음에 관여된 인물들은, 예수를 팔아넘긴 유다, 예수님을 로마 총독에게 넘긴 유대 지도자들, 재판을 진행하고 사형 선고를 내린 총독 빌라도, 그의 명에 따라 형을 집행한 병사들 그리고 사면의 기회에 예수님 대신 강도 바라빠를 놓아달라고 청했던 군중들입니다. 여기에 예수님을 세 번 모른다고 했던 베드로 사도를 비롯하여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에 도망갔던 열 제자들도 간접적으로는 포함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도 요한은 십자가 아래에 있었다고 전하니 그분은 제외할 수 있겠지요? 이런 분들이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고 고백한다면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신’이라는 표현이 가장 많이 나오는 곳은 바로 사도의 서간입니다. 바로 사도는 스테파노가 순교하는 자리에 있었지만, 예수님 생전에 그분을 직접 뵈었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그런데도 사도께서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이 고백은 예수님과 아주 멀리 떨어진 시대에 사는 우리의 고백 상황과 아주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바로 사도의 고백, 무슨 의미일까요?

- 다음 주에 계속

사도들의 기쁨과 삶을 담은 사도행전 읽기



제도화로 변화되는 교회

(사도 6,1-7)



김덕재 안드레아 신부 | 사목국 성서못자리 담당

사도행전은 5장에서, 바르나바라는 별명을 얻은 요셉과 하나니아스라는 인물을 비교하며 위선적 신앙의 위험성을 잘 알려주었습니다. 초대교회의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문제가 대두되는데, 바로 불평등입니다.

초대교회에는 두 부류, 그리스계와 히브리계 신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스계 신자들은 그리스 지역에서 출생하여 해당 문화권에서 자라난 이들로, 율법에 대한 이해와 충성도가 낮은 이들이었습니다. 이에 비해 히브리계 신자들은 율법을 향한 충성도가 높았습니다. 이들은 서로 너무 달랐습니다. 율법을 바라보는 시선도, 예수님을 이해하는 방식도 달랐습니다. 그토록 다르더라도 서로를 향한 이해와 사랑을 바탕으로 둔다면 하나가 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결국 서로에 대한 불신과 반목을 만들어 낼 뿐입니다. 또한 이 반목은 주도권을 누가 쥐고 있는가에 따라 억압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초대교회에도 이런 현상이 나타나, 그리스계 과부 신자들이 배급에서 홀대받게 됩니다. 이러한 홀대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가운데에서 높은 사람이 되려는 이는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마르 10,43)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면서,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요한 13,34)는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리스계 과부 신자들을 향한 차별 대우는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과 계명을 어기는 것이

입니다. 말씀과 계명의 위반은 ‘그것을 지키지 않았구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공동체를 파국으로 내모는 중대한 요소입니다.

사도행전보다 후대에 쓰인 야고보 서간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실천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야고 2,14) 즉 실천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사랑도 마찬가지로입니다. 다름에 대한 이해와 서로에 대한 배려가 동반되지 않는다면, 사랑이라는 가치는 공허한 메아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믿음과 사랑이 구현되기 위한 제도와 형식들을 찾아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식탁의 봉사자에게 배급의 직무를 맡기고 자신들은 기도와 말씀 봉사에만 전념하는 것이었습니다.

초대교회의 복음 선포 여정은 순탄하지 않았습다. 사도들의 고난, 교회 내부의 위선과 불평등의 문제 등 여러 가지 굴곡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고난 속에서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욕을 받은 것에 기뻐했고, 교회 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롭게 변화해 나갔습니다. 지금 교회의 복음 선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세속화 속에서 교회는 깨어 있어야 하고, 다른 생각을 가진 이들에 대해 열린 마음도 지녀야 합니다. 참으로 힘든 여정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사도들과 함께하셨듯이, 우리와도 함께하시기에 이 여정은 고난이 아닌 희망의 여정입니다.



꼬미마을, 통합 생태 마을을 꿈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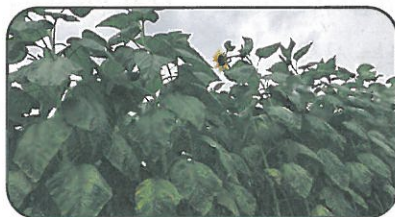
김광숙 노엘라 | 국제가톨릭형제회(AFI)

지구·기후 위기와 더불어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면서 여러 방법으로 식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하여 “하느님께서 보시니 좋았다.”라고 하신 말씀대로 살아 보고자 귀향을 선택했습니다. 시골은 8, 90대 노인들만 계시는 위기의 현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생태적 삶을 가꾸고 살아내면 새로운 기회가 올 것이라는 희망이 보였습니다. 2021년 4월 경북 고령군의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콘테스트” 사업을 통해 개진면에서 인안2리, 꼬미마을이 선정되면서 통합 생태 마을의 꿈을 펼칠 좋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우리 마을은 87세 이상 어르신 10명, 그 이하가 9명, 대구 시내에서 출퇴근하는 이가 4명, 주말농장을 하는 이가 5명입니다. 빈집이 13채이며, 그중 몇 채는 이미 폐가가 되었습니다. 젊은층이 새로 유입되지 않으면 곧 사라질 위기에 놓여 있는 농촌 마을입니다.

통합 생태 마을의 밑그림은 3가지 영역으로 나눠서 그렸습니다. 첫째, 마을을 가꾸고 땅을 살리는 자연 생태. 둘째, 문화와 영성이 살아 숨쉬고, 사람 사는 맛을 내는 사람 생태. 셋째, 전통과 역사를 살리고, 인구 소멸과 그로 인해 빈집이 늘어나는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사회 생태. 이렇게 세 가지 영역에 따른 실천을 기획했습니다. 빈집이 늘어나는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해 꼬미마을에서 태어나고 자란 100여명을 초대해 ‘고향 방문의 날(Home Coming Day, 홈커밍데이)’ (2022. 8. 14.~15.)을 개최하였습니다. “우리 마을에 이런 날이 올 줄을 몰랐다.”고 감격하며 참석자들은 자발적으로 1천5만 원의 기부금을 내기도 하였습니다. 이날 꼬사모(꼬미마을을 사랑하는 모임)를 발족하여 해마다 모임을 지속하기로 하였습니다. 2021년부터 현재까지 통합 생태 마을을 가꾸어 온 활동 중 몇 가지를 나눕니다.



* 자연 생태 마을 가꾸기

문화재용 고령 기와로 기와 꽃밭 조성, 죽은 소나무로 마을 광장 벤치 설치, 서울 노고산 애기 단풍 이송해서 심기, 폐비닐장에 대나무 담장 두르기, 복숭아나무 30그루 마을 입구에 심기, 해바라기 1,500주 모종 키워 해바라기 꽃밭 조성하기 등

* 사람 생태 마을 가꾸기

쉼과 만남의 공간 마을회관 조성, 원두막 ‘치산정(雉山亭) 복원과 현판 부착, 소리덕(率禮) 황토방과 꼬미 밤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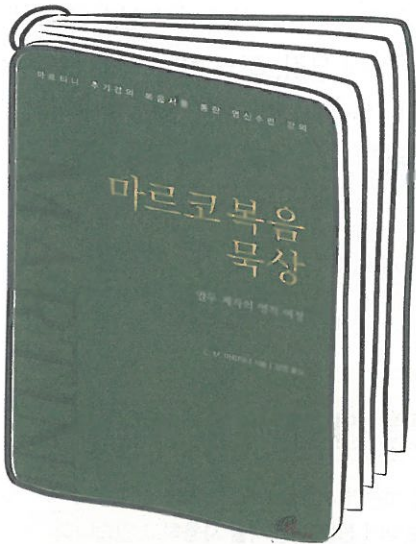
실 돛자리 영화관 개장, 뒷산 길에 영적 여정 길 팻말 세우기, 등근산 오솔길 조성, 탁구대 기증받아 탁구장 만들기 등



* 사회 생태 마을 가꾸기

마을의 상징새인 꿩 솟대, 마을 유래석, ‘치산대장군·꼬미여장군’ 설치, 옛 공동 우물터 복원, 두레박 제조와 ‘큰새미’ 현판 설치, 마을회관 벽화 조성, 효자비와 낙산서원 정비, 마을 자원인 관솔, 황토방, 쪽으로 <꼬미 나라 사회적 기업> 시도, 마을 역사관 소장 자료 축적 시작, ‘꼬미마을 고향 방문의 날’ 개최 등

주민들은 가능한 우리 힘으로 마을을 가꾸고자 합니다. 오늘도 아름답게 꾸미고, 마을 소개 피피티도 만들며 마을이 변화되어 가는 모습을 수시로 꼬사모 회원들과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마을을 찾는 방문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수록 맛이 나는 마을, 볼수록 정이 가는 마을, 알수록 설레이는 마을을 계속 가꾸어 나갈 것입니다.



도서 '마르코복음 묵상'

위기의 시기, 영감의 원천



김우선 데니스 신부 | 예수회, 서강대학교 교수

“오월은 금방 찬물로 세수를 한 스물 한 살 청신한 얼굴이다.” 수필가 피천득이 노래한 5월은 신록의 달이고 성모 성월이며 부활 시기와 겹치는 계절의 여왕입니다. 한국인은 교회에서 이런 청신한 얼굴을 보고 위로 받기를 바라지만, 현실에서는 거리가 느껴집니다.

“유럽과 미주에서 교회는 지쳤습니다. 우리 문화는 늙었고 성당과 수도원은 거대하지만 비어 있고 교회 관료제는 커졌습니다. 우리 전례와 웃은 화려합니다... 웰빙이 우리를 누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치 부자 청년 같습니다. 예수님이 제자가 되라고 부르자 슬퍼하며 돌아간 부자 청년...” 정신이 번쩍 나게 하는 말을 한 사람은 저명한 성서학자이자, 요한 바오로 2세 이후 차기 교황 후보로도 세간의 주목을 받았던 마르티니 추기경(1927~2012)입니다. 그는 2012년 생애 마지막 인터뷰에서 서구 교회를 이처럼 묘사하며, 교회가 우리 시대보다 200년은 뒤떨어졌다고 변화와 회심을 강하게 촉구했습니다.

마르티니 추기경의 언급은 서구 교회를 염두에 두고 한 말이었지만, 지금의 한국 교회에도 적합하게 들어맞습니다. 성당과 수도회 건물은 많아졌지만, 이미 코로나 이전부터 청년들을 보기 힘들고 주일학교는 쇠퇴했습니다. 또, 성소자는 감소하고 신앙인의 정체성도 약화되었습니다. 서구에 비하면 역사가 길지 않은 한국 교회인데 이미 지쳐 버린 듯합니다. 생기 회복이 절실합니다.

마르티니 추기경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영감을 주는 영웅은 어디 있습니까? 그들을 제도의 경계 안에서만 찾으려고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종략) 저는 교황님과 주교님들께 행정 라인 바깥에서 12명을 찾으라고 조언해 왔습니다. 가난한 이와 가까운 사람, 젊은이들에게 둘러싸인 사람,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런 방식으로 불타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습과 관료제를 넘어 ‘불타는 열두 사람’을 찾으라는 추기경의 조언이 신선합니다.

추기경은 오래전부터 서구 교회의 위기를 바라보고 성서 묵상과 피정을 통하여 사목자들을 격려해 왔습니다. 근자에 개정 출간된 『마르코복음 묵상』 중 “갈릴래아 활동에서 발생한 위기” (씨앗의 비유)에 대한 묵상은 그런 단면을 보여줍니다. 예수님 활동에서 경험한 위기를 통해 제자들과 우리의 위기를 연결하고 씨앗의 비유에 대한 묵상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신뢰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1974년 이탈리아 북부 주교단의 영신수련 피정에서 한 강의를 엮은 이 책에는 마지막 인터뷰에서 언급하는 위기감이 직접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영신수련 지도자의 절제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만, 미래 추기경의 넓은 지평을 엿볼 수 있습니다. 위기에서 빛을 발하는 내공은 겸허하게 원천과 기본에 충실할 때 축적이 되는 것이죠. 우리도 ‘불타는 열두 사람’을 찾는 한편, 복음 묵상이라는 원천과 기본에 충실하며 5월을 지내면 어떨까요? 우리 내면의 청신한 얼굴이 사람들에게 영감이 되도록!

제16차 세계주교시노드 정기총회 준비를 위한 성모 기도의 날
 세계주교시노드 제16차 정기총회(제1회기 2023년 10월 4일~29일)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방문 축일이며 성모 성월의 마지막 날인 5월 31일(수)에 성모 기도의 날을 거행할 것을 주교대의원회의 사무처에서 요청해왔습니다. 서울대교구에서는 성모 기도의 날 미사를 5월 31일(수) 오전 10시에 명동대성당을 비롯한 각 본당에서 봉헌합니다.

한국 천주교회 통계(2022) 발행

한국천주교주교회의가 발행한 ‘한국 천주교회 통계 2022’에 따르면, 2022년 12월 31일 현재 한국 천주교회의 신자 수는 5,949,862명으로 인구대비 1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본당 수는 1,784개이며 성직자 수는 총 5,703명으로 집계 되었습니다. 수도자 수는 총 11,576명으로 남자 수도자 1,602명, 여자 수도자 9,974명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교회의 홈페이지(<https://cbck.or.kr>)에서 볼 수 있습니다.

2023 수도회 큰잔치

2023년 수도회 큰잔치 ‘좋기도 좋을시고’가 5월 21일(주일) 10시부터 19시까지, 명동대성당 일대에서 있습니다. 수도회 홍보 및 성소자(후원자) 모집, 토크 콘서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신자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수도회 소개 및 물품 판매	10시~19시, 성당 마당
수도회 소개 영상	10시~19시, 문화관 2층 고티스트홀
버스킹	13시~16시, 성당 마당 입구
토크 콘서트	10시30분~12시 · 14시~15시30분, 문화관 2층 소성당

지구를 살리는 발걸음!

생태 환경 보존에 서울주보도 함께하기 위해
5월 7일 자 주보부터 친환경 용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선물로 주신 환경을 사랑하는 일!
 서울주보와 함께 시작하세요!

교구청 알림

주교좌 명동대성당 혼인미사 성가단 단원 모집

모집 파트: 테너, 베이스 약간명
 지원 자격: ① 가톨릭에서 세례를 받은 신자(혹은 예비신자) ② 다음의 성가단 활동에 지장이 없는 자, ③ 만 26세 이하의 현재 성악을 전공하고 있는 대학생
 문의: 02)774-1784 / 자세한 문의는 명동성당 홈페이지(www.mdsd.or.kr) 참조

가톨릭 임상사목교육(CPE 교육) 교육생 모집

위기나 고통을 겪고 있는 이들(가족, 교육, 이웃)을 돌보기 위한 실제적이고 효과적인 영적돌봄 방법을 배우는 교육입니다 / 문의: 02)727-2434
 교육 프로그램: 정규반(16주), 단기반(8주)
 서울센터: 명동 임상사목교육센터
 수원센터: 성빈센트병원 임상사목교육센터

2023년 사목국 성서못자리 성서특강

1) 2023년 사목국 성서못자리 성서 특강
 주제: ‘요한 묵시록의 예수 그리스도’
 때: 6월26일(월) 10시30분~15시20분
 곳: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대강의실(혜화동)
 강사: 허규 신부(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교수)
 접수: 5월17일(수) 10시부터, 사목국 홈페이지(www.samok.or.kr) ‘성서못자리 신청’ 통해 사전 접수(선착순 400명) / 회비: 4만원(점심식사 제공)
 문의: 02)727-2379 사목국 성서못자리
 2) 27차 성경 특강과 함께하는 이스라엘 성지순례
 때: 7월7일~15일(8박9일) / 지도: 전영준 신부
 주관: 성서못자리 / 문의: 010-6734-0190(문자 또는 카카오톡 문의) 심 소화테레사

본당 수도자 연수

주제: 중독 돌봄 / 회비 없음(6월7일 마감)
 때, 곳: 6월13일(화) 14시~16시, 가톨릭회관 3층 강당 / 사목국 홈페이지에서 개별 신청
 문의: 02)727-2063 사목국 교육지원팀

갤러리1898 전시 안내 / 문의: 02)727-2336

최문숙 개인전: 1전시실
 백승주 개인전: 2전시실
 석지랑 ‘다시 부르는 이름들’: 3전시실
 전시일정: 5월17일(수)~25일(목)

제50차 우리의 지구를 위한 미사

대상: 하느님의 창조질서보전을 위해 함께 하고자 하는 전 신자 및 후원회원
 때, 곳: 5월18일(목) 11시, 가톨릭회관 1층 소성당(명동)
 주례 및 강론: 이준혁 신부(이문동성당 보좌), 이재돈 신부(환경사목위원회 위원장) 공동 집전
 문의: 02)727-2283, 2278 환경사목위원회

‘슬픔 속 희망찾기’ 집단상담 및 유가족 미사

1) ‘슬픔 속 희망찾기’ 집단상담 프로그램 안내
 대상: 초기 자살유가족 / 진행: 황순찬 교수
 때: 4회기 6월9일, 6월16일, 6월23일, 6월30일 10시~13시, 가톨릭회관 1층 소회의실
 인원: 10명(인원수에 따라 조기마감 될 수 있습니다)
 신청: 5월31일까지 전화 및 홈페이지(3079.or.kr) 접수
 문의: 02)727-2495 한마음한몸자살예방센터
 2) ‘슬픔 속 희망찾기’ 5월 유가족 미사 안내
 때, 곳: 5월20일 매월 세번째(토) 10시(묵주기도), 10시30분(미사 봉헌), 가톨릭회관 1층 소성당
 집전: 차바우나 신부
 문의: 02)727-2495 한마음한몸자살예방센터

서울대교구 온라인 예비신자교리

사목국 홈페이지(www.samok.or.kr) ‘온라인 예비신자교리’ 내용 참조 / 신청: 본당 사무실
 문의: 02)727-2069 사목국 교육지원팀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미사

(‘내 마음의 북녘 본당 갖기’ 미사)
 때, 곳: 1369차 미사 5월16일(화) 19시, 명동대성당
 이번 주 기억할 본당: 평양교구 속천 본당, 순천 본당
 미사 후, 한반도 평화와 북녘본당을 위한 묵주기도 봉헌합니다 / 문의: 02)727-2420

사목국 영성심리상담교육원 서울가톨릭상담센터 개인심리상담

심리정서(불안, 우울, 성격), 대인관계 어려움, 직장 및 학교 부적응, 가족관계, 진로상담
 곳: 서울대교구청 별관 가톨릭상담센터 B106호(명동), 노동사목회관(보문역), 노원성당, 삼성산성당, 천호동성당, 화곡본동성당
 문의(예약): 02)727-2139(월~금 10시~17시)
 전화상담: 02)727-2137(월~금 10시~17시)

순교자현양위원회 미사

1) 복자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 기념미사
 때, 곳: 5월27일(토) 오전 11시, 서소문 밖 네거리 순교성지(서소문성지 역사박물관) B3 콘솔레이션홀
 주례: 손희송 총대리 주교(순교자현양위원회 위원장), 교구 사제단
 문의: 02)3147-2402 서소문 밖 네거리 순교성지
 2) 시복시성 기원미사
 이 달의 하느님의 종 ‘김준기 안드레아’
 때: 매월 셋째주(화) 5월16일 오전 10시(186회)
 곳: 절두산 순교성지 / 집전: 원중현 신부
 문의: 02)2269-0413 순교자현양위원회

인준단체 알림

모임

4지구(종로·성북) 성령기도회

미사·강의: 염삼섭 신부 / 문의: 010-3321-1863
 때, 곳: 매월 셋째주(금) 5월19일 13시~16시, 길동동성당

일본 가고시마교구 성지순례

곳: 가고시마, 나가사키, 아키타, 북해도(3박4일)
 회비: 75만원·115만원 / 문의: 010-3645-9028

토아울람 후원회 화요 치유 피정

때, 곳: 매주(화) 12시30분~16시, 가톨릭회관 7층
 담당: 김중국 신부 / 문의: 010-5514-4077 회장

작은형제회(프란치스코회) 청년 성지순례

대상: 35세 이하 미혼 남녀 / 문의: 010-6608-3217
 때, 곳: 5월27일(토) 오전 9시, 서울대교구 내 성지

몽포르의 성 루도비코 묵상 피정(마리아학교)

강의, 묵상, 미사 있음 / 문의: 010-2724-4819
 때, 곳: 5월15일(월) 9시30분~12시, 가톨릭회관 7층 강당

예수성심 위로의전교회 모임 / 문의: 010-3275-8707

때, 곳: 매월 첫번째(금), 프란치스코 교육회관(경동)
 미사: 오전 10시30분·낮 12시 / 본회는 예수성심을 전파하고 가난한 성당과 공소 및 국내외 선교사를 지원하는 영적 물적 후원회입니다

11(강남)지구 성령기도회

때, 곳: 매주(금) 19시~21시40분, 역삼동성당(주차가능)
 미사, 안수 / 문의: 010-4667-3792 서 카타리나

5월19일	김인성 신부	5월28일	양홍 신부
-------	--------	-------	-------

국악성가연구소 월례기도·수강생 모집 / 문의: 02)558-2004

월례기도	6월5일(월) 14시	무용반	매주(금) 15시
성가반 무료 강좌	매주(수) 14시 / 누구나 환영		
반주장구반	초급반 (목) 13시30분		

제주 면형의 집 피정(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수사·신부들과 제주 성지·역사·생태 순례와 미사를 함께하는 산들평화 순례 피정
 문의(접수): 02)773-1463, 064)756-6009

자연순례	6월3일~5일, 6월23일~25일
성지순례(추사도)	5월27일~30일, 6월10일~13일, 6월17일~20일, 9월10일~13일, 10월7일~10일
여름특별 피정(우도)	7월29일~31일, 8월4일~6일

서울대교구 성령쇄신봉사회 기도회

곳: 전철 2호선 신림역 5번 출구, 버스 환승 500·504·6512·5535 천주교성령봉사회관 하차 / 02)867-7900

주일기도회	(일)	13시20분~17시	미사: 16시
월요일기도회	(월)	18시30분~22시	미사: 21시
치유기도회	(수)	13시~17시	미사: 16시
로사리오기도회	(목)	13시~17시	미사: 16시
철야기도회	(금)	18시~22시	미사: 21시
생명축복기도회	(토)	16시~19시30분	미사: 18시
성경학교	(화)	13시~15시30분	미사 없음

혼인성소(새혼 포함) 찾길 피정 / 문의: 010-3173-2665
 접수: 다음카페 'oh oh my half' / 최영민 신부(예수회)

5월 '잠시멈춤' 청년 기도모임(착한목자수녀회)

때: 5월24일(수) 19시30분 / 문의: 010-7197-1390
 곳: 명동대성당 상설고해소 B401호 / 대상: 남녀 청년

예수전교회 치유대피정 / 문의: 010-8898-6770

때: 5월20일(토) 오후 1시~5시 / 강사: 김완식
 곳: 가톨릭회관 7층 강당 / 담당: 김인성 신부

수도 생활 체험 피정

대상: 만 35세 미혼 여성 / 회비: 2만원
 때: 5월27일(토)~28일(일) / 문의: 010-9816-0072
 곳: 스승예수제자수녀회(주최) 본원(미아리)

성체현시와 성모송 천번 기도회

때: 5월15일(월) 12시30분~17시
 곳: 삼성산 피정의 집 대강당 / 문의: 02)874-6346 삼성산성령수녀회, 사랑의성령봉사회

봉헌을 위한 33일 묵상회(파타마의 세계사도직)

때: 5월11일~6월15일 매주(목) 19시30분~21시
 곳: Zoom 화상모임 / 봉헌식: 6월17일(별도 공지)
 회비: 2만원 / 문의: 02)756-3473, 010-2759-3473

효소단식 성체신심 치유 피정

영성과 디톡스로 자연치유력 회복
 때, 곳: 5월19일~22일·6월23일~26일·7월7일~10일·7월28일~31일·8월4일~7일·8월18일~21일, 성 도미니코 수도원(주최, 수유동) / 회비: 36만원(효소비 포함)
 문의: 010-9363-7784 글라라

루하 찬양의 광장(청년성령쇄신봉사회)

찬양을 통한 치유회복기도회에 청소년과 청년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카카오톡플러스친구: 루하
 때: 매주(금) 19시30분
 곳: 천주교 성령쇄신봉사회회관(관악구 조원동) 3층
 문의: 02)866-6345 / 인스타그램: @ruah.fiat

제주 성 이시돌 자연순례 피정

성 이시돌 목장 내 성지에서 쉼과 은총의 시간, 계절마다 아름다운 제주여행과 성지순례
 대상: 개인, 가족, 본당 구반장, 소규모 모임
 때: 5월22일~24일·5월29일~31일·6월4일~6일·6월10일~12일·6월18일~20일·6월23일~25일·7월22일~24일, 여름특별 피정(우도) 7월28일~30일·8월1일~3일, 추사도성지 포함 자연순례 7월1일~4일·7월7일~10일 / 문의(접수): 02)773-1455, 064)796-4182

교육

수제 묵주 조각 기초부터 완성까지(가톨릭목공예)

카페: cafe.naver.com/cmc04 / 문의: 010-5234-5044

서강대학교 '가톨릭 지성인을 위한 영성 강의'

강의·미사: 송봉모 신부(예수회) / 회비 없음
 때: 5월15일(월) 14시~16시 / 문의: 02)705-4711
 곳: 서강대학교 이나시오 소강당 / 주제: 예베네제르의 하느님을 찬미하며, 아브라함의 생 2

'닥종이인형' 회원 모집

(한국여성생활연구원)

사부작사부작 '마음을 힐링하는 시간' 닥종이인형 회원을 모집합니다 / 문의: 010-2788-3741
 지도: 초대작가(복촌닥종이인형연구회)

인공지능(AI) 시대와 인격적 신앙(ICPE)

때, 곳: 5월28일(일) 10시~17시, 마리스타 교육관 / 미사
 회비: 2만원(중식 제공) / 문의: 010-5646-6594

어르신 선종 교육 '죽음-웰다잉선종' 강의·미사

때: 5월23일(화) 10시~13시 / 문의(접수): 02)766-7370
 곳: 노인복지위원회 성모노인센터(주최, 종로3가창덕궁앞)

수도전통에 따른 렉시오 디비나 입문 과정

때: 6월7일·14일·21일·28일(수) 14시~16시 / 회비: 12만원
 곳: 씨튼여성센터(서울) / 지도: 허성준 신부
 문의(접수): 010-4731-2468 최안나(애관 성 베네딕도회)

평신도를 위한 기도훈련-어떻게 기도할 것인가(온라인 병행)

주제: 일상 삶에서 하느님 만나기
 대상: 성서를 통하여 기도하는 방법을 알고 싶은 신자
 때: 6월1일부터 매주(목) 10시30분·19시40분(6주)
 곳: 한국CLC 강의실·온라인 Zoom / 회비: 7만원
 5월25일까지 접수 / 문의: 02)333-9898 한국CLC

미국 가톨릭사립학교 학생 모집

문의: 02)2258-8983(oakinternational.co.kr)
 주최: 그리스도의 레지오 수도회 운영 학교법인

정규입학	초5~고2 / 1년 이상
여름국제캠프	초3~중2 / 남: 시카고, 여: 보스턴

음악 심리 상담사 자격 초급반

곳: 한국음악치료연구소(전철 3호선 대청역)
 문의: 010-4252-1165 가톨릭성음악클래식기타회

목요일반	6월1일~15일 13시30분~16시30분	회비:
수요일반	6월14일~28일 13시30분~16시30분	15만원

2023학년도 후기 교회음악대학원 신입생 모집

원서접수: 6월12일(월)~23일(금) / 전형일: 7월14일(금)
 문의: 02)740-9704(http://songsin.catholic.ac.kr/music)

석사 과정(5학기)	오르간, 합창지휘, 작곡(CCM 작곡 포함)
석사학위 및 가톨릭교회 인준의 고급교회음악가 자격증 수여	

성바오로수도회 말씀학교 무료 강좌

곳: 성바오로수도회(강북구 송중동) / 미사 있음

매주(목)	마르코복음 강좌(예수님 수의와 함께) 10시~12시30분 / 010-6287-9753
	성서 입문 14시~16시30분 / 010-6293-2060

모집

명동대성당 가톨릭합창단 신입단원 모집

대상: 성가봉사를 하고자하는 20~45세 남녀 가톨릭 신자 / 명동대성당 홈페이지(PC버전) 이메일 접수
 때: 6월17일(토) 13시30분 / 문의: 010-3211-5195 (문자)

2023년 대건행버라이어 연주단원 모집
Zelenka시리즈6(ZWV46,57) / 서울·인천 연주
문의: 010-3720-5740 총무

명동대성당 가톨릭여성합창단 신입단원 모집
대상: 20대~40대 후반 여성 교우
때: 5월28일 13시 / 문의: 010-6303-1365

재속 맨발 가르멜회 서울 십자가의 성 요한 회원 모집
대상: 만 55세 이하 견진성사 받은 분
첫모임: 6월12일 / 문의: 010-9836-8998

그린합창단 남성단원 모집
연습: (수) 19시, 유락종합사회복지관
오디션: 가톨릭성가 1곡 / 문의: 010-4171-3405 단장
창단 30주년 기념연주회 준비중

아퀴나스 합창단 단원 모집
아퀴나스 합창단(67년 창단·교구 소속 평신도 단체 / 담당 최호영 신부)이 30, 40대 새단원(각 파트 약 간명)을 찾습니다 / 오디션: 자유곡(악보 지참)
문의: 010-2778-2704 총무

2023년 제11기 청년해외봉사단 모집
대상: 한국 청년 12명(선착순)
때, 곳: 7월4일~13일(8박9일), 라오스 라시캄학교
회비: 항공료(자부담), 일체비용 지원
5월15일까지 이메일(goons@hanmail.net) 접수
문의: 02)335-3332 사무국(한국가톨릭문화연구원)

미사

사천년복음화학교 후원회 월례미사 / 문의: 02)753-8765
때, 곳: 5월18일(목) 낮 12시, 가톨릭회관 3층

미래사목연구소 후원회 미사
때, 곳: 5월23일(화) 11시, 미래사목연구소(김포시 고촌읍 신곡로 134) / 문의: 031)986-7141

글라셋선교수도회 서울후원회 월례미사
때, 곳: 5월15일(월) 11시, 글라셋선교수도회 본원(성북동) / 문의: 02)743-7026, 010-7764-6031

성골롬반외방선교회 열린미사
나눔: 이현규 신부(서울대교구)
때, 곳: 5월20일(토) 16시, 골롬반 선교센터(전철 4호선 성신여대입구역 4번 출구) / 문의: 02)953-0613

사랑이 피는 기도모임 월례미사
때, 곳: 5월15일(월) 14시~15시30분, 가톨릭회관 205-2 / 내용: 고해성사, 미사, 성체조배
문의: 02)6253-3373, 010-8360-3700

예수성심전교수도회 후원회 미사
성시간, 목주기도, 미사 / 접수 필수
때, 곳: 5월19일(금) 10시~13시, 가톨릭회관 102호
문의: 02)379-8091, 010-6311-8071

북방선교회 후원회 월례미사 / 문의: 010-6219-1575
대상: 북방선교에 관심있는 분은 누구나 / 회비 없음
집전: 김운상 신부(해위선교봉사국 차장)
때, 곳: 5월22일(월) 14시, 가톨릭회관 205-2호

성바오로수도회 협력자 월례미사 / 문의: 02)548-3623
대상: 협력자 회원, 개인 누구나 참여 가능
때, 곳: 매일 첫째주(토) 10시30분(사도의 모후)·15시(디모테오), 성바오로수도회(논현동, 북카페 레넬)

안내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성가정입양원
문의: 국내입양상담: 02)764-4741~3(www.holyfac.or.kr)

봄길 심리상담연구소(마리스타 교육수사회)
전문상담: 청소년, 개인, 부부, 가족, 여성 / 첫회 무료
곳: 합정 / 문의(예약): 010-8981-8356 (전화상담 가능)

도미니코 수녀원 영성센터 / 문의: 010-5604-1882
전문심리치료: 개인(우울·공황·불안·강박·트라우마·해리현상 등), 가족 및 부부갈등, 종합심리검사

성리파엘상담소
때: (월)~(토) / 문의: 070-4248-7573, 010-3008-4627
법정 저소득 가정(무료 상담) / 대면, 비대면 모두 가능
분노, 우울, 불안, 부적응 / 심리검사

사별가족 돌봄 프로그램 '사랑마루'
대상: 사고사 또는 돌연사로 자녀 사별을 경험한 부모로 회복의 시기에 도움을 받고자 하는 분들
때: 5월25일~7월13일 매주(목) 14시~17시(8주)
곳: 용산성당(용산구 효창원로15길 37)
5월18일(목)까지 접수 / 010-8891-4572 용산성당

진애인 가족치료연구소
곳: 명동 / 02)587-9207(http://jinain.com) 토요일상담 가능

개인심리치료	불안, 우울, 분노, 공황장애, 강박적 행동 등
가족심리치료	부부, 가족(자녀)간의 갈등, 행동문제, 대인기피

전·진·상 영성심리상담소 / 문의: 02)726-0700
곳: 명동 / 홈페이지: www.ijscen.or.kr

전문 심리상담	개인심리치료, 가족심리치료(정서불안·우울·분노·소통과 관계의 어려움), 종합심리검사
사목상담	성격, 관계, 정서(불안·우울·단절감) 등 심리적 고통에 관한 상담(1회기 1만원·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분들 한함)

수도원 재건축을 위한 도움 요청
익산 클라라봉쇄수도원은 보수공사로 유지가 어려워 재건축이 불가피합니다 도움을 겸손히 요청합니다 / 문의: 010-6680-0692
계좌: 국민 753501-01-480346 (재)천주교유지재단

천주교 서울대교구 카프성모병원
알코올 전문병원, 중독(도박·인터넷 게임 등) 중점 치료, 우울, 불안, 수면 장애 등 정신의학과 진료
때: (월~금) 9시~17시·야간진료(화) 18시~20시30분
곳: 고양시 일산 동구 백석역 7번 출구 5번 거리
문의: 031)810-9200 / 홈페이지: www.karf.co.kr

유관단체 알림

코로나로 중단된 '떼제 노래와 함께하는 기도모임' 재개
대상: 청년, 청소년과 동반 부모 / 문의: 02)744-0840
때: 매일 세번째(토) 5월20일·6월17일·7월15일 16시
곳: 햇살사목센터 성당(주최, 혜화로2길20)

직원모집

장애영유아거주시설 디딤자리 조리원 모집
조리사 자격자, 디딤자리 홈페이지 참조 / 02)987-6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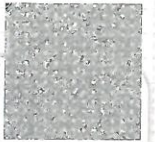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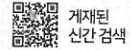
서울평단협 사무국 직원 모집
분야: 사무국 행정 간사 1명
5월21일(일)까지 이메일 접수
서류: 서울평단협 입사지원서, 교적 사본 각 1부
홈페이지(www.clas.or.kr)-알림-공지사항 참조

기양동성당 관리인 모집 / 문의: 02)2659-3272
분야: 관리인(계약직) / 업무: 미화, 성당 관리
대상: 세례받은 신자로 소방 안전 관리·가스 전기 통신, 시설물 관리 분야 자격증 소지자 및 유경험자 우대
서류: 응시원서(서울대교구 홈페이지 직원모집 안내에서 다운로드), 교적 사본, 본당 주임신부님 확인서
채용시까지 우편·방문(우 07524, 서울시 강서구 허준로 69) 및 이메일(hms6312@seoul.catholic.kr) 접수

서울대교구청 전산정보실 직원 모집
대상: 세례받은 분 / 개발언어 JAVA·C#(닷넷), DB관련 PostgreSQL·MSSQL 업무 가능한 분
분야: 교구 사무원 0명(계약직, 정규직 전환 가능)
서류: 응시원서(천주교 서울대교구 홈페이지 직원 모집 안내에서 다운로드-지원업무 기재), 교적 사본, 본당 주임신부님 확인서(본당 발급) 각 1부 / 이메일 문의 1차 서류 전형, 2차 구술시험, 3차 최종면접(해당자 개별 연락) / 5월28일(일)까지 이메일(aoinsa@seoul.catholic.kr) 접수

수도회 성소모임	때	곳	문의
도미니코 수도회	수시	수도원(강북구 삼양로 139나길 16-8)	010-2034-0042 (문자 문의) 안토니오 신부
살레시오회	매월 네번째(토) 14시	관구관(신길동)	02)828-3527 유명일
천주교서울교구제천교회	수시	선교회(한남동)	010-2749-4596, 02)749-4596
한국외방선교회	6월4일(일) 11시	본부(성북동)	010-8715-2846

서울주보 '알림'에 게재되는 내용에 대한 책임은 각 신청 단체에 있습니다



신간

태아 맛이 축복 기도

김경순 지음
바오로딸 | 144쪽 | 1만원
문의: 02)944-0944

하느님께서 부부에게 부여하시는 새로운 사명이 무엇인지 알고 느끼도록 이끄는 안내서다. 이 책은 태아맛이 준비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며, 임신 준비부터 임신 기간 동안 부부가 함께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를 바칠 수 있도록 되어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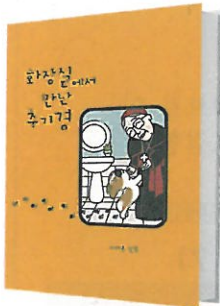


신간

바이스마르의 존재론

벨라 바이스마르 지음
가톨릭대학교출판부 | 319쪽 | 1만9천원
문의: 02)740-9718

이 책은 형이상학의 근본적 물음들을 다루기 때문에, '근본적 형이상학에 관한 책'이라고 할 수 있다. 단순히 철학사에서 형이상학의 문제를 추려서 요약하거나 특정한 철학자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이 두 가지를 배경으로 하면서 인간 정신의 인식과 존재에 대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룬다는 장점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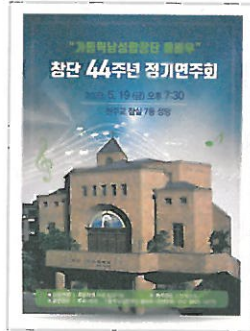


신간

화장실에서 만난 추기경

이재용 지음
비지아이 | 222쪽 | 1만8천원
문의: 02)2285-2710

수원교구 이재용 신부의 에세이로 보좌신부 시절 본당 공용 화장실에서 김수환 추기경을 만나 어색한 웃음을 나누며 나란히 일을 보았던 이야기, 대전의 한 사우나에서 당시 유흥식 주교를 발견하고 등을 밀어드린다고 할까 말까 고민하던 사연 등 민망하고도 유쾌한 에피소드를 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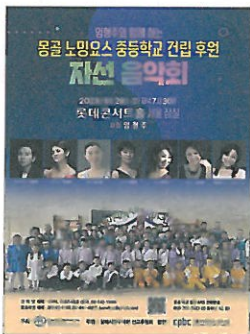


공연

가톨릭남성합창단 올바우 정기 공연

전석 초대
문의: 010-9526-1677 총무 황인수

가톨릭남성합창단 올바우는 남성 4부 합창단이며, 1979년 창단 이래 수많은 정기 연주회 및 초청 연주회를 통하여 성음악 안의 남성 화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과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해 왔다. 창단 44주년을 맞아 정기 공연을 5월 19일(금) 19시 30분, 잠실7동성당에서 진행한다.



음악회

몽골 노명요스 중등학교 건립 후원 자선 음악회

입장권: R석 13만원, S석 10만원, A석 7만원, B석 5만원 / 문의: 02)742-1500 네이버, 롯데콘서트홀, 02)841-8957 살레시오수녀회
단체 20명 이상 20%, 초·중고 학생 20% 할인

교육 전문 수도회인 '살레시오수녀회'에서는 5월 29일(월), 롯데콘서트홀에서 '임형주와 함께 하는 몽골 노명요스 중등학교 건립 후원 자선 음악회'를 개최한다. 이번 자선 음악회에서는 팍페라 테너 임형주, 소프라노 박성희, 플룻 이소영, 오보에 이명진, 하프 박라나, 피아노 오순영, 그리고 이은경과 K요들친구들이 연주한다.



공연

춘향: 날개를 뜯긴 새

공연시간: 목금 19시30분, 토 15시
입장권: 전석 4만원 / 문의: 02)751-1921
전화 예약 후 관람 당일 서울주보나 모바일의 본 안내문 지참시 주보 1부로 10명 40% 할인

5월, 봄의 향기와 함께 다가온 '춘향'의 자유를 향한 외침이 국립정동극장 예술단의 몸짓으로 그려진다. 2023 국립정동극장 예술단 정기 공연 <춘향: 날개를 뜯긴 새>가 5월 18일(목)~20일(토), 국립정동극장 세실에서 공연된다.

제2280(성 바오로 사도 회심 축일)

연회동성당

http://www.yeonhui.or.kr

03727 서울시 시대문구 연회로 64-14

본당사무실 : 323-4450~1, 4456 FAX : 336-2233


주임신부 : 류시창(베드로)

보좌신부 : 박진호(사도요한)

연령회장 : 이범지(루시아) 010-6288-1683

주일 미사	• 토요일: 오후 3시 (초등부), 오후 6시	유 아 세 례	홀수달 첫째 주일 오후 4시 30분
	• 주 일: 오전 7시, 오전 9시, 오전 10시 30분 (중고등부·반대), 오전 11시(교중) 오후 6시 (청년 20, 청년 30)	혼 인 면 담	매 월 셋째 주 일 오후 3시
평일 미사	• 월요일: 06시 화요일: 10시, 19시 수요일~금요일: 06시, 10시 토요일: 06시	성모신심미사	매 월 첫째 토요일 오전 10시

◎ 자녀와 함께하는 연회동성당케이크 체험

일시 : 5월 14일(주일)
 회차 : 11시 / 12시 30분 / 오후 3시
 신청 : 자부회장 (010-2402-3759)
 문자 또는 카카오톡 채널 등록 후 신청
 비용 : 15,000원 / 신청 후 바로 입금
 신청 131-020-537366 자부회
 상세안내 및 문의 : 
 카카오톡 채널 「연회동성당문화학교」
 친구추가 후 등록 / QR코드 →

◎ 반디주일학교 봄소풍

일시 : 5월 14일(주일) 11시 30분 ~ 오후 4시
 장소 : 명동성당
 문의 : 반디교감 (010-8081-9812)

◎ 성소후원회 미사

일시 : 5월 16일(화) 10시 미사
 ※ 성소후원회 회원분들 회비는 사무실에
 내주시기 바랍니다.

◎ 바오로 시니어대학 야외행사

일시 : 5월 19일(금) 오전 8시 30분 출발
 장소 : 양평 양근성지

◎ 청년 성지순례

일시 : 5월 20일(토) 오전 10시 30분
 장소 : 절두산 순교성지
 대상 : 청년 누구나
 신청 : 성당 사무실
 문의 : 청년회장 (010-2550-2375)

◎ 여성 구·반장 야외행사

일시 : 5월 25일(목) 오전 8시 출발
 장소 : 남이섬

◎ 병자영성체

일시 : 5월 26일(금) 10시 미사 후

◎ 초등부 부활 은총 잔치

일시 : 5월 27일(토) 오후 3시 ~ 오후 6시
 장소 : 성당 마당, 지하 식당
 ※ 성당 마당에 차량 출입을 통제합니다.


◎ 남성 울뜨레아

일시 : 5월 21일(주일) 교중미사 후 301호

◎ 여성 울뜨레아

일시 : 5월 23일(화) 10시 미사 후 304호

◎ 문화학교 6월~8월 학생모집(주일학교)

수강과목 : 바이올린, 통기타/우쿨렐레, 미술, 영어
 접수기간 : 재접수 - 5월 15일(월)~19일(금)
 신규접수 - 5월 20일(토)~24일(수)
 개강 : 6월 1일부터 / 매주 토요일 수업
 접수 및 문의 : 
 카카오톡 채널 「연회동성당문화학교」
 친구추가 후 등록 / QR코드 →

◎ 청년 전례단

20 예그리나 / 30 프리모 신입단원 모집
 문의 : 전례단장 (010-9526-3217)

◎ 청년 한푸름성가대 단원 모집

매 주일 오후 6시 청년미사를 찬양으로 더
 아름답고 풍성하게 만들 단원을 모집합니다.
 연습일시 : 매 주일 오후 4시
 문의 : 미카엘라 단장 (010-3160-2988)

◎ 교무금 책정 현황 (2023. 5. 7)

총세대	책정세대 (책정율)	납부세대 (납부율)	2022년 책정율	2022년 납부율
2,080	736 (35.4%)	694 (33.4%)	43.8%	41.8%

교무금계좌번호 우리은행 137-04-110875

※ 교무금 자동이체 신청해서 납부 바랍니다.
 교무금은 반드시 교무금 책정자 이름으로
 송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헌금 (5월 1일~7일)

정수진 칠만원 익 명 일십만원
 익 명 일십육만원 익 명 오만원
 김재균 오만원 최분이 오만원
 김유정 일십만원 미라클합창단 일십만원

◎ 우리들의 정성 (부활 제5주일)

교 무 금 11,315,000원
 주일헌금 5,680,000원

입당	132	봉헌	414, 25, 33	성체	170, 175, 176	파견	244
----	-----	----	-------------	----	---------------	----	-----



온 세상 아 하나님께 환호하여라